제 1579 호 1991년 11월 24일 창간 2022년 5 월 22 일

§교 회 목 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22년 표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행 동 지 침†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요한복음 강해

인간 지식의 문제들 I

(요 9:18-34)

이종윤 원로목사

우리는 누구나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식의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니 우리는 누구보다도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은 먼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딤후 1:2)과 우리의 구주가 살아계심을 아는 것입니다(욥 19:25).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존재인 것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도 압니다(롬 8:28).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형편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룰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요일 3:2).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지식에 대해서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가졌는데 그 지식에 자신을 완전히 던질 만큼 확신이 없다면 그 지식은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지식이 될 뿐입니다. 본문에도 몇 사람이 지식 문제로 고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 구원에 이르지 못할 지식

(1) 맹인 부모의 지식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요 9:21상)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고 했을 때 그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참으로 한심한 지식이었습니다. 맹인의 부모는 눈 뜬 자가 자기들의 본래 아들이지만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21절). 그들은 아들이 눈을 뜬 이유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아들로부터 들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들었으며, 무엇보다도 자기 아들이 조금 전까지 맹인이었던 것을 모를 리가 없었을 터인데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그렇게 했다고 인정을 하면 자신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22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들은 바 있고 또한 그가 메시야이심을, 또한 그를 믿으면 영생에 이르게 됨과 마침내는 그가 심판주가 됨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그 지식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하면서 그 지식을 고의적으로 없애버리려 하고 기억 속에서 망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자기들에게 닥쳐올 미래의 무서운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가 메시야인 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들은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 바리새인들의 지식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요 9:29)

바리새당 역시 자기들의 지식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맹인의 부모로부터 결정적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 뜬 자를 불러서 문초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24절). 이 말은 예수께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라는 무서운 말입니다. 가장 의로운 척, 가장 진리 편에 서 있는 척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으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죄인 취급을 하는 무서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으로는 알고 있으나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로는 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29절). 그리고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고 했습니다(24절).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다 좋은 지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무서운 일은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29절). 그러나 요 7:27에서는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했습니다. 마귀, 악마, 사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말의 일치성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어제 한 말과 오늘 하는 말이 다릅니다. 그러나 참을 말하는 사람은 10년 후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기원이 어디인 줄 모른다고 하면서 그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모순입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죄인인 것도 알 텐데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른다고 해놓고 또 죄인이라고 했으니 바리새인들의 지식이 바로 사람 잡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고의적으로 배신하고 멀리 가는 것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전을 쓰며 소란하게 전하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에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느냐 하는 확신입니다.

(다음 주 계속)

지난 5월 14일(토), 15대 신임장로들은 어버이 날과 스승의 날을 맞아 이종윤 원로목사님을 찾아 뵈었다.
이종윤 원로목사님은 찾아 뵌 15대 장로들에게 딤후 1:2의 말씀을 주시며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부지런히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라"고 당부하셨다.

오늘 축복기도 받았어요!

지난주 1부 예배와 2부 예배 시간에 교회에 출석한 새아기들에게 손달익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시는 '유아 축복기도'시간을 가졌다.

귀한 아기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아름답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 부탁드린다.

백나온 아기
아버지 : 백성훈 성도 · 어머니 : 김지혜 성도
할아버지 : 백도환 집사 · 할머니 : 석춘희 권사

김노아 아기
아버지 : 김동환 집사 · 어머니 : 정지은 성도
할아버지 : 김성준 집사 · 할머니 : 김선영 권사
외할아버지 : 정완진 집사 · 외할머니 : 김희순 권사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서울 강남노회 남선교회연합회 헌신예배 및 월례회

서울 강남노회 남선교회연합회 헌신예배 및 월례회가 5월 28일(토) 오후 3시, 우리 교회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열린다

스데반회 체육대회

스데반회(회장: 백도환 집사)는 6월 6일(월) 아가페타운에서 스데반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6월 6일 홍해작전 새벽기도회 후 오전 7시에 출발할 예정이며 교통편도 마련되었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한국기독교학술원 제58회 학술 세미나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 이종윤 목사)은 5월 23일(월) 오후 2시, 종로 5가에 소재한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관에서 '청교도 운동, 언약도 운동'을 주제로 제58회 학술공개세미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학술원은 이광순 교수에게 올해의 학술상을 수여하고, 이승택 장로는 미국 언더우드대학교로부터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받는다.

천국시민 양성 - 교사 헌신예배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김혜언 장로
(교육위원장)

'야곱의 축복'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야곱이 애굽에서 죽음을 맞으며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을 찬양으로 만든 것으로, 3,7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녀 또는 학생들의 성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심는 축복의 마음을 담아 부르는 찬양입니다.

요즈음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마다 교회학교 운영이 어려워 교회학교가 폐지된다는 소문이 계속 들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 심해졌으며 한국 교회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분란의 위기와 팬데믹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학생들의 예배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쪼개지고 나뉘어져 가뜩이나 적은 숫자의 교사들이, 반은 교회학교 예배를 지키기 위해 교회 밖으로 향하고, 남은 교사들이 예배를 준비하던 모습은 한 손에 무기를 놓지 않고 성전을 재건하던 느헤미야 시대의 상황과도 유사한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한고비를 넘자마자 안도할 겨를도 없이 마주한 전염병의 위기는 교회학교의 새로운 운영 및 예배에 대한 고민과 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렵고 난감한 상황이 계속되어도 교회학교 교사들의 다짐은 담장을 넘는 학생들의 '성장'입니다. 학생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뻗어나가는 비전'을 심어주려 합니다. 다음 세대의 건강한 성장만큼 우리의 기쁨을 대체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장과 비전을 지원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사들에게 '어려움'이란 단지 변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교사들을 기도로 서게 하시고, 학생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작금의 상황을 통해 담장을 넘어서는 천국일꾼 양성의 절박함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서울교회 학생들이 가정의 담장을 넘고, 교회의 담장을 넘고 넘어, 그들의 가지를 이 나라와 세계를 향해 맘껏 뻗쳐 나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의 성장과 비전을 기대하고 지원하며 날마다 때마다 변함없는 열정과 수고로, 소리 없이 무릎 꿇어 기도하시며 봉사하시는 서울교회 선생님들의 헌신을 맘 깊이 존경하고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천국시민 양성 - 영어성경부

영어성경부, 대면 성경공부를 시작합니다!

장경원 집사
(영어성경부 부장)

서울교회 영어성경부가 지난 1월 30일(주일)부터 진행해 온 비대면・카톡 모임을 공지된 대로 5월 15일(주일)부터 대면으로 전환하여 첫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영어성경부 그리고 2년 넘게 모이지 못한 환경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여러가지로 생소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위로와 새 힘을 주실 것이니 감사함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경공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간단하면서 유연한 형식으로 구성했으므로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삶 속에서 적용하기를 소원하는 마음만 가지고 나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성경공부 후 교회 식당에서 점심 식사도 같이하면서 삶을 나눌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매 주일 오전 10:10분에 802호에서 뵙기를 소원합니다.

- 일시 : 매 주일 오전 10:10 - 10:50
- 장소 : 802호
- 내용 : Greeting, Praise, Bible Reading, Message, Sharing

새벽을 깨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

새벽 성경 열차 타고 말씀과 기도의 여행 함께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김은석 집사
(2교구)

언젠가 TV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간은 크게 인상적이지 않았지만 마지막 회가 압권이었습니다. 광활하고 웅장한 바이칼 호수를 배경으로 그것을 바라 보는 출연자들의 벅찬 감동과 소회로 긴 여정을 마치는 장면이 이 여행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 어머니가 새벽예배 가시면서 공부하라 깨우신 고등학교 시절, 괴롭고 혼미한 정신을 차려볼까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다 우연히 듣게 된 극동방송의 모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느껴 시작된 저의 새벽예배는 즐거움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기쁨에는 찬양으로, 사회생활의 분노와 슬픔에는 묵묵히 들어주심으로, 기도 중에 주시는 지혜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즐거움은 하루 한 장에 집중해서 풀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경건의 무게로 다가오는 주일설교와는 다르게 편안함으로 구절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제가 오늘 적용과 실천할 점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 귀중한 시간은 그 어떤 개인적인 QT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주의 시작과 끝에 많은 준비를 통해 신학적으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부목사님들의 말씀도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드디어 지난주 창세기로 시작되는 새벽 성경 열차가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지난해 저의 새벽예배 주제 찬송은 535장이었는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어떤 주제 성구와 찬송을 주실지 기대됩니다. 아침 운동이 육체를 건강하게 하듯, 새벽예배는 영혼을 단단하게 하는 반복학습 같습니다. 운동에도 중독성이 있듯이,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기쁨, 위로 그리고 결단이 새벽예배의 묘한 중독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4년여의 긴 여정이지만 요한계시록을 마친 후 예배당을 나설 때 상쾌한 아침 공기와 함께 맞이하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벅찬 감동을 함께 느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모님께 드리는 안부 영상통화, 화면으로만 보는 세계여행은 뭔가 아쉽지 않을까요? 생생한 말씀과 기도의 현장, 교회당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늦어도 머리가 천장에 닿을듯한 4층 맨 뒷자리에 앉아야 했던 옛 추억이 그립습니다.

새벽예배를 통해 회복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최종희 권사
(4교구)

2018년 2월 첫 주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새벽예배가 4년 3개월 만에 요한계시록까지 마칠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년간의 악몽 같은 기억은 끄집어내는 것조차 마음이 아프지만 교회를 지키기 위해 거짓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합리한 노회의 판결에 우리 교회가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새벽예배를 통해 창세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문이 닫혀 있어 새벽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는 당시 매주 토요일 춥고 어두운 새벽에 닫힌 교회 문 앞에 서서 서로가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며 핸드폰 라이트로, 자동차 헤드라이트로 비춰가며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예배를 마치고 베델하우스로 가서 주일 식사를 준비하던 일, 총회에서 판결이 있는 날에는 함께 모여 기도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매일 다니엘과 여호수아처럼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

오직 교회를 지키기 위해 기드온의 용사가 되었던 사서함들!

격려해 주시기 위해 먹거리로 섬겨주셨던 많은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서로가 위로하며 격려한 어르신들께서 자리를 지켜 주셨고 따뜻한 말로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터널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역사하심은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소원했던 서울교회의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1층에서 새벽예배를 드릴 때 함께 섬겼던 김순진 권사님과 정금희 권사님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강대상 물잔을 올리고 음악 등을 준비하며 새벽예배를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새벽예배는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새롭게 세워져 갈 서울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 빈약한 자 구제,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로 치유되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날로 부흥되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이 새벽예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주 우리 교회는...

소망부(부장 손태현 집사)는 지난 5월 18일(수),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2022 경로잔치'를 개최하였다. 지난 5년의 교회의 혼란 중에도 진행되었던 경로잔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여간 중지하였다가 열리는 귀한 의미의 시간으로 당회의 도움과 권사회의 식사 준비 및 스데반회의 봉사로 기쁘고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수고하신 모든 손길에 감사드린다.
① ② 경로잔치 전경 ③ ④ 100세가 넘으신 노인덕 권사님, 김복녀 권사님께 선물을 증정하시는 손달익 목사님 ⑤ 교역자들의 특별찬양 ⑥ 은빛찬양대의 특별찬양 ⑦ ⑧ 식사 준비로 수고하신 권사회와 진행을 도와 수고하신 스데반회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5월23일	월	대하 31-33		마 14-18	
5월24일	화	대하 34-36		마 19-22	
5월25일	수	스 1-2		마 23-26	
5월26일	목	스 3-7		마 27-28, 막 1-2	
5월27일	금	스 8-10		막 3-6	
5월28일	토	느 1-4		막 7-10	
5월29일	주일	느 5-7		막 11-16	

광 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김요한 이상민 한지원 심중규 문영훈 이준우
  정건 유성근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심준규
  허성강 백승규 장하랑 최윤학 이강현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5월 23일(월) 한국기독교학술원이 주최하는 제 58회 학술공개세미나에 참석한다

■ 식사 제공 : 유명석 권사
아들 조현석 며느리 조정애
딸 조은정 사위 김철호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코로나 핑계로 잠자던 신앙생활에서 깨어나 모이기에 힘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일상이 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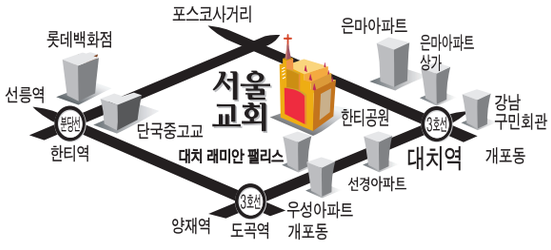
2. 한국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국 교회 되게 하소서.

3.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된 대한민국 이루어져 세계 선교에 더욱 쓰임 받는 나라 되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요예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